

# \*\*역대 대통령 관저 및 집무공간의 실내디자인 표현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Expressiveness of Interior Designs shown in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and Office

오인욱\* / Oh, In-Wook

### Abstract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aspects of interior designs in current use have been combined with changing trends and developed and handed down throughout centuries. An examination of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spaces where Korean presidents have lived during their terms of office could get a useful clue by which both traces of Korean modernism and senses of modeling can be perceived.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literatures that can be verified. Therefore, it would be especially meaningful to find out and analyze documents uneart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xpressiveness of interior designs of presidential residence and office which have been combined with changing trends and developed, while classifying respective cases during presidential tenure by periods of Joseon Government general, U. 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first Republic, the second Republic, the third and the fourth Republic, the fifth Republic, and the sixth Republic, examining relevant literatures, photos, drawings and making on-the-spot survey. The study is also intended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spects and the features of interior designs shown in presidential residences and offices that are not so much made known due to uneasy access to archives and to document the resources buried in oblivion and to consider the historical meanings.

키워드 : 조선총독부 관저, 대통령 관저, 집무공간, 실내디자인 표현성

Keywords : Residence and office of Joseon Government General, Presidential residence and office, Expressiveness of interior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내디자인의 모습들은 분명 우리의 시대적 역정(歷程)을 거치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 이식(移植)되고 유입(流入)된 흔적이 그 맥을 따라 존재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근대주의가 식민지 경험과 광복 후의 혼돈이라는 문제의 생활상을 알게 되고 「일제의 양식주의와 왜곡된 시대 조형 그리고 전쟁공간을 채우기 위한 양의 가치관, 이 세가지 이 유가 빌미가 되어 버짐 핀 얼굴로 20세기의 피곤한 역정의 시작을」<sup>1)</sup>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생활한 시대별 실내공간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공간속에 내재된 한국 근대주의의 흔적과 조형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흐름속에 이식, 유입, 도입된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

공간의 실내디자인을 시대적으로 고찰하여 그 표현성을 살펴봄으로써 역대 대통령의 공간들 속의 표정들과 한국실내디자인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자료의 제한과 부재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소실되어 가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 구 본관 건물이 생성된 조선총독부 관저기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시대적 범위에서 문헌, 사진자료, 영상자료, 도면을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론의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답사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로 이루어 졌다.

- 1) 조선총독부 관저기/ 1939년 9월 22일-1945년 9월12일
- 2)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년 9월7일-1948년 8월14
- 3) 제1공화국(제1 共和國)/ 1945년 8월15일-1960년 6월14일
- 4) 제2공화국(제2 共和國)/ 1960년 6월15일-1962년12월25일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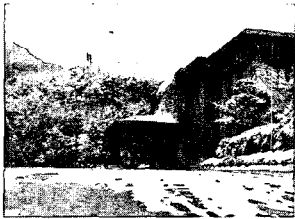
1)박길룡, 한국 실내건축의 유전자, 공간사, 2005, p.25

- 5) 제3,4공화국(제3,4 共和國)/ 1962년12월26일-1980년10월26일
- 6) 제5공화국(제5 共和國)/ 1980년10월27일-1987년10월28일
- 7) 제6공화국(제6 共和國)/ 1985년2월25일-1993년 2월

조선총독부 관저기에서는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관저를, 미군정기에서는 경무대와 초대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생활한 이화장을, 제1공화국 시기에는 6.25로 인한 임시수도 시절의 관저인 사빈당, 당시의 경무대, 제2공화국에서는 청와대라고 명칭을 바꾼 윤보선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 구분관, 제3,4공화국에서는 청와대 구분관을 사용한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당시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 시기에 건립된 영빈관을 포함한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청와대 구분관, 제6공화국에서는 신축된 청와대 본관 및 관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사례 분석하도록 한다.

## 2. 대통령 관저 및 집무공간의 생성과 역사적 배경

### 2.1.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관저



<사진 1> 조선총독부 관저 외관

조선총독부 관저는 1939년 7월 25일 준공되어 동년 9월 20일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1945년 조선총독부가 철수하기까지 일본 정부의 한국 지배를 위한 식민통치의 정령(政令)을 내리는 한국내 최고 통치자의 사택으로 있게 되었다. 이 신축된 총독 관저의 첫 입주자는 제7대 총독인 남차랑(南次郎)으로 1937년 조선에 부임해 와서 1942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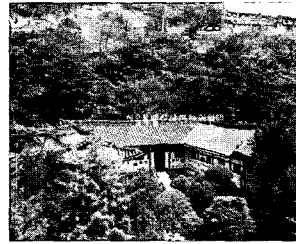
제8대 총독은 소기국소(小磯國昭)로 1942년 5월 29일 부임하여 1944년 7월 22일까지를 총독관저에서 생활하였다.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이 한참 수행되는 과정에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총독관저의 모든 기능과 운영체제도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총독관저의 전기사용시간의 제한, 신축 및 증축금지, 후원의 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였다.<sup>2)</sup> 따라서 총독관저의 모든 생활은 비상사태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 본관 건물 전체에는 의장강(擬裝綱)을 씌우고 본관 북쪽 산기슭에 방공호(지하벙커)를 만들었다.

제9대 하부신행(何部信行)은 마지막 총독으로 종전 1년전인 1944년 7월 25일에 부임하여 이듬해 8월 15일까지 이 관저에서 생활하였고, 거의 패전이 짙어가고 있는 전시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관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이 무조건 항복하자, 아베 총독은 주요 문서, 서류 등을 불태우고, 집기를 닦치는 대로 부수고 급게 단장되어 있던 다다미

2)청와대건설지, 대통령 비서실, 1992

방을 훼손시켰다. 미군정(美軍政)은 계속 일인관사(日人官使)를 주둔케 했지만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배일(排日) 내지 반일(反日) 의식은 1945년 아베 총독을 해임하고 한국을 떠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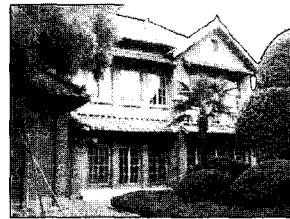
### 2.2. 해방이후 미군정기(美軍政期) 경무대와 이화장



<사진 2> 이화장 외관

아베가 물러난 후 처음으로 경무대의 주인이 된 사람은 미국 극동군 사령부 소속 제14군단 사령관 육군중장 하지(John. R. Hodge)였다. 한국의 실질적 최고 통수권자인 하지는 몇 달간을 조선히otel과 반도 호텔에서 지내다가 1945년 12월 중순경前 총독관저로 옮겨와 이곳을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대통령관저로 사용되면서 경무대라고 불렸다. 이때 1945년 해방되자 망명지인 미국에서 귀국한 전 대통령 이승만은 당시의 실업가 권영일 등의 도움으로 동소문동 돈암장에서 이화장<sup>3)</sup>으로 옮겨서 1947년 11월부터 1948년 7월 경무대로 이사하기까지 기거하게 된다. 1960년 4월 27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이사하였고 5월 29일에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 2.3. 임시수도시절 대통령 관저의 사빈당



<사진 3> 사빈당 외관

6.25가 발발하여 임시수도가 부산으로 옮겨감에 전 경남지사 관사를 임시 대통령관저로 사용하였는데 전쟁당시 3년간(1950-1953) 부산에 임시수도시의 역할을 담당했을 때 대통령 관저로 이용된 곳이다. 현재는 「사빈당」이란 당호로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개조, 공개되고 있다. 사빈당 건물은 1926년 9월에 준공되어 일본인 경상남도 지사가 거처하는 총독부 소속의 관사로 사용되었다.<sup>4)</sup> 해방이후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던 정부가 대구를 거쳐 1950년 8월에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경상남도 청사를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이용하고 경상남도 지사 관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었다.

1950년 9.25서울수복과 함께 서울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부산 대통령관저에서 서울 경무대로 이전해 갔다. 그 후 다음해인 1951년 1.4후퇴로 3개월간의 경무대 대통령 관저를 청상하고

3)위치: 종로구 이화동 1번지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던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산실.

4)임시수도기념관 실측조사수리보고서, 부산박물관, 2001, p.114

다시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1953년 휴전과 함께 서울로 환도할 때 까지 이 건물은 약 2년 동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다.

## 2.4. 제 2, 3, 4, 5 공화국과 청와대



<사진 4> 청와대 구본관 외관

4.19의거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경무대의 새주인이 된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로 이사 온 지 4개월 후인 12월 30일에 독재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경무대(景武臺)라는 이름을 없애고 청와대(靑瓦臺)라 이름을 지었다.

5.16 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청와대의 새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때 1978년 12월에는 각종 의전행사 및 기자회견장으로 4층 규모의 영빈관(迎賓館)이 신축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때에는 본관 내부를 한·양식 절충형으로 대수리를 하여 대통령은 소접견실을 접무실로 대신 활용하면서 삼청동 총리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은 본관 입주 후 1980년 12월에 본관 현관의 위치를 변경, 부분 증축하게 되고, 영부인 접견실을 전통 한식으로 개수하는 등 전문가(설계: 김수근 공간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하였다.

## 2.5. 제6공화국의 청와대 신축

제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조선총독부 관저로서 이용되어온 청와대 건물이 낙후하고, 외국 국민들의 잦은 방문으로 국민접대의 장으로 쓰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축된 신본관은 1989년 7월에 기공하여 1991년 8월 15일에 완공을 하였다.

옛 구분관은 대통령의 접무공간과 생활공간이 한 건물에 위치함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겨 본관과 분리하여 관저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또한 언론의 활성화로 춘추관이라는 언론공간을 1990년에 청와대 경내에 신축하게 되었다. 구 본관 건물은 조선총독부 관저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일제의 잔재를 일소한다는 의미로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 1993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청 건물과 함께 철거되어 소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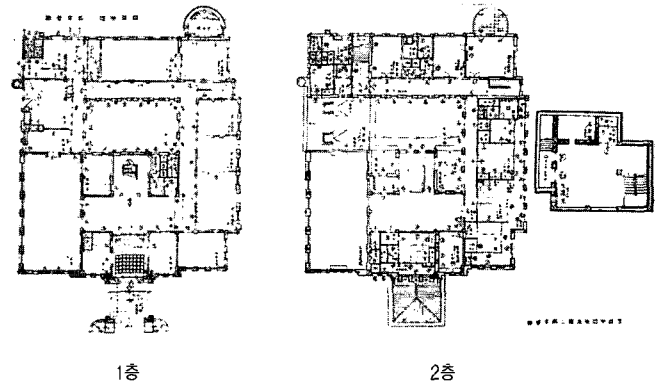
## 3. 시대적 구분에 의한 사례 조사



<사진 5> 조선총독부 정면외관

### 3.1. 조선총독부 관저기 (1939년 9월-1945년 9월)

1916년 조선총독부 청사를 착공하여 1926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총독부의 총독 관저를 현 청와대 경내에 563.06평 규모로 1939



<그림 1> 조선총독부 관저 평면

년 9월에 신축하였다. 관저 신축에 대한 설계는 조선총독부 관방회 계과(官房會計課) 영선계에서 설계하고, 고문(顧問)은 공학박사 좌야이기(佐野利器)가 맡았다. 전기설비공사는 도전상웅(鳥田常雄)과 청대상점(靑大常店)에서 담당하였고, 난방과 급수급탕 및 위생공사는 동구근(東口近)에서, 택지의 정지작업은 합자회사 근강조(近江組)에서 하였다. 커튼 및 기구의 설비는 주식회사 내외목재(內外木材)와 고도실(高島室)에서 하였으며,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에서 전기공사를 맡아하였다.<sup>5)</sup>



<사진 6> 조선총독부 관저 제2접견실



<사진 7> 조선총독부 관저 거실

관저의 내부구조는 1층이 접무공간, 2층이 생활공간으로 1층에는 비서관실, 각 응접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소식당, 서재, 거실, 침실, 식사실, 화장실, 현관, 대식당, 사무실, 의모실<sup>6)</sup>(衣帽室), 식물실(植物室), 욕실, 사랑방, 객실 등으로 되어있다. 사면을 건물로 채워놓는 방식의 井字形으로 하고 그 가운데는 뜰로 만들었다. 중정(中

廷)의 설계방식은 전형적인 일본식의 가옥구조 형식으로 하였고 안뜰은 수석, 화초 등으로 장식하여 일본식 정원으로 조성하였다.

5)청와대건설지, 대통령비서실, 1992

6)입구에서 외투 등을 벗어 맡겨 놓는 곳



<사진 8> 조선총독부 관저 현관홀 정면계단

2층은 욕실, 화장실, 식당, 서재, 하녀방, 침실, 총독전용방, 부인전용방, 일본식의 다실(茶室)로 되어 있다. 1층은 대리석과 서양식 가구로 실내를 장식하여 입식생활을 하

도록 하였으나, 2층의 일부는 다다미를 깔고 일본식 불박이장으로 공간처리를 하였다. 총독부처방, 전용방, 총독방, 부인방 등 4室은 다다미 방으로 설계하였다.

지하에 별도로 기관실을 설치하여 전체난방을 하도록 하였으며, 석탄을 사용한 스팀식의 난방방식이었다. 2층의 발코니 부분은 기와조이며, 총독방과 부인방은 각각 15조씩으로 된 다다미방이었다. 제 1거실은 10조, 객실은 13조로 된 다다미방이었다. 특히 건물의 현관은 조선인의 기(氣)를 꺾는다고 하여 서향에 두었다.<sup>7)</sup>

### 3.2.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년 9월-1948년 8월)

미군정은 1945년 9월 12일에 아베 총독이 한국을 떠난 후 미국 사령관 하지(John. R. Hodge)장군이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바꾸어 입주하게 되어, 일본식으로 내부구조가 되어진 이곳을 美·日 절충식으로 개조하여 사용되었다. 사용층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실 부분으로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2층에 있던 욕실의 가마솥을 떼어 내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조하였다.

#### (1) 이화장

1945년 해방이 되자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화장으로 옮겨와서 1948년 7월까지 사용하게 된다. 이화장의 새 단장에 건축계 원로인 이천승 선생이 개입하게 된다. 꾸밈지(1991년) 건축가의 대답에서 초대건축가협회장 이천승 선생의 건축 인생의 대답 내용을 보면 「하루는 해방이후 3.1독립 동지회에서 날보고 이승만 박사가 거처할 '이화장'을 손 좀 봐 달라는 거야 건축가로서는 하나의 일거리인지라 해주었지. 그러다



<사진 9> 이화장 서재

보니 이박사와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이천승 선생이 이화장의 내부구조와 실내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장 본체의 내부구조는 현관에 들어서면 중앙에 대청마루가 있고 오른쪽에는 응접실(접견



<사진 10> 이화장 응접실

실)과 서재가 위치한다. 응접실은 외부인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전통 한옥구조로서 천장벽의 몰딩은 재료분리대의 역할로서 장식적 개념없이 벽지와 천장지의 이음부분을 표현했을 뿐이고 한옥구조에서 평천장에 작은 보를 노출시켜 현대적 감각이 보인다. 마감재료에서 천장지, 벽지 등과 함께 마루위에는 양탄자를 깔고, 입식을 위해 응접세트를 배치하고 정면벽에 초상화를 걸어 방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다. 응접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일제시대에 제작된 장의자식의 소파와 현대적 디자인이 적용된 의자들이 사용되고 있다. 각종 출입문은 여닫이 출입문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대청마루 왼쪽에는 침실과 부엌이 있다. 건물 본체 자체로는 별다른 특징이 없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한옥이 그 시대상을 수용하며 변모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11> 이화장 침실

침실은 전혀 장식없이 벽지로 마감하고 침대 및 화장대, 휴식의자, 사이드 탁자 등이 호마이카 철을 한 제작된 가구들로서 특히 침대머리장의 디자인이 간단히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설합과 거울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종합해 보면 1920년대에 건립된 이화장의 전통건축의 내부공간 요소들이 1940년까지 많이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구조는 대청이라는 매개공간을 중심으로 이질적인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전형적인 한국 전통가옥 구조를 하고 있다. 가구, 장식품 등의 실내디자인 요소들의 현대적 양식변화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해외 생활에서 경험한 모더니즘 건축의 경험으로 전통적 개념에 의한 절충적 경향의 의장적 특징과 함께 서구식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3. 제1공화국(1948년 8월-1960년 6월)

#### (1) 경무대



<사진 12> 경무대 대접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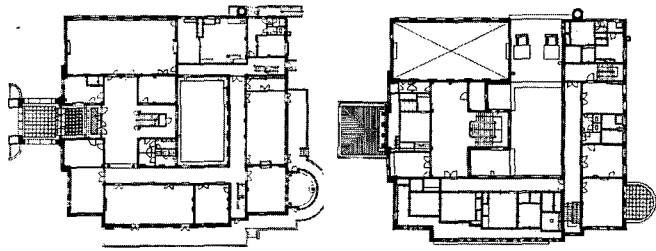
미군정기 하지 장군이 생활할 때부터 경무대란 이름을 되찾았던 이곳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이승만 대통령 내외는 이화장에서 일제 총독관저였던 경무대로 입주하였다. 경무대의 1층을 대통령 집무실로 2층을 생활공간인 관저로 사용하였다. 낡은 경무대 본관건물을 개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되어 증·개축없이 1960년 4월 26일까지 사용하였다. 경무

7)청와대건설지, 대통령비서실, 1992



<사진 13> 경무대 대통령 집무실

대의 대접견실 및 주요실들은 조선총독부 관저 시절에 서양식 가구로 실내를 장식하여 입식생활에 편리하고 외부 접객을 맞을 수 있게 사용되었다. 그 후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사용됨에 따라 미·일 절충식으로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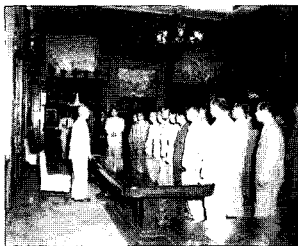


1층 2층  
<그림 2> 1948년-1960년 경무대 평면



<사진 14> 경무대 대접견실 후면

되어진 실내디자인에 단지 한국의 전통성을 가미하려는 의지로 소품(병풍, 3층장 등)을 배치하여 장식적 개념을 도입한 흔적만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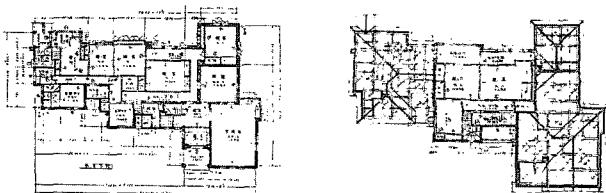


<사진 15> 경무대 대접견실

대접견실의 중앙부에 미국 콜로니얼 양식의 벽난로 모양의 디자인을 채용하여 장식적 효과를 주면서 실 전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하여 위엄성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경무대 대통령 집무실은 중앙부에 문양이 있는 바닥카펫을 깔고 소파를 배치하여 서양식의

실내구조를 보이고 있다. 벽면은 목재물딩에 벽장식을 하고 문양이 있는 벽지를 사용하고 벽면의 그림과 사진들은 벽의 중앙 윗부분에 걸린 것을 보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2) 사빈당(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그림 3> 임시수도 관저 평면도

1926년 8월 준공되어진 경남지사 관사는 한국전쟁기 부산의 임시수도시절(1950년-1953년)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어진 건



<사진 16> 부산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외관

물이다. 이 건물은 2층 목조건물 기와집<sup>8)</sup>으로 경상남도 지사 관사의 건립당시 설계도면으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평면계획상의 공간구성은 1층은 다다미방, 응접실, 부엌 등 15개의 실과 기타 계단실 2개, 중복도, 현관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3개의 실과 기타 발코니 3개, 중복도,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계획의 기능은 양식풍의 '사회적 공간'과 일본 전통풍의 사적 공간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가사공간'으로 3개의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사진 17> 당시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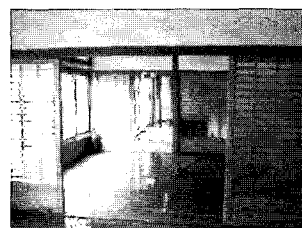


<사진 18> 현재 응접실

당시의 기록사진을 보면 건물 전체는 일제 강점기 당시 모습을 거의 다 간직하고 있었고 단지, 대통령의 집무는 주로 응접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립당시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응접실의 경우 서양식의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어 미국풍이 많이 가미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난방 시스템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동절기에 화로, 폐지카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 관저 관련 사진에서 보면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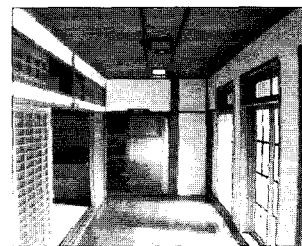


<사진 19> 응접실



<사진 20> 2층 가족실

또한 프란체스카여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식생활을 고려해 볼때 1층의 차노마(茶の間)와 다다미방을 통합하여 식당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거처하던 다다미방(居間) 북측벽면에 욕실겸용 수세식 화장실을 증축<sup>9)</sup>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21> 복도

8)부산시 서구 부전동 2가 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면적 2,621m<sup>2</sup>, 건평 413m<sup>2</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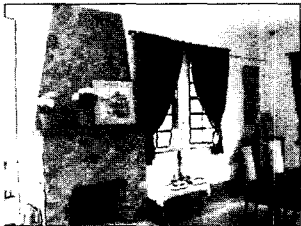
1) 중복도 부문은 2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주현관에서 들어와 홀을 통하여 각 실을 연결하는 복도 부분과 두 번째 영역은 부 현관에서 들어와 각 실을 연결하는 복도부분이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공간과 손님을 위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마감재로는 천장과 벽면은 미장합판으로 마감되었으며 바닥은 장마루 위 카펫으로 마감되어 있다.

2) 응접실은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당시 대통령 접견실로 사용되고, 실내마감은 서양식으로 꾸며졌다.

벽난로를 중심으로 좌측에 돌출창이 있고 우측으로는 오르내리기창이 있다. 돌출되어진 하부 부분에는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이 있고 다시 그 밑에 ㄱ형의 불박이 소파를 설치하였다. 응접실의 중앙에는 긴 회의용 탁자가 놓여져 있고 벽면쪽으로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벽면은 회반죽 마감으로 처리하여 흰 벽면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과거 장마루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위에 다시 카펫을 깔아 서양식으로 신발을 신고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측면에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해방이후 또는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3) 침실은 서재 옆에 붙어 있는 실로서 과거 대통령 및 지사가 거쳐하던 방으로서 내벽은 목조로 하여 양식과 일본식을 절충한 식이다. 현재는 조적조위에 벽지로 마감하고 천장은 천장지로 마감되어 있다. 바닥 난방이 외에 2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설치되어 있다.

4) 욕실 및 화장실은 원래 일본전통의 욕실로 외부에서 불을 집혀 물을 데우는 후로(風呂)로 구성되어진 목욕탕으로 2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2개 공간을 하나의 욕실로



<사진 22> 응접실의 벽난로



<사진 23> 침실



<사진 24> 변기

<사진 25> 소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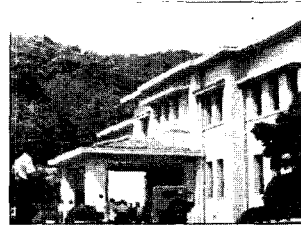
<사진 26> 욕실

구성되어 있다. 천장은 베니어합판 반자로 되어 있고 벽면과 바닥은 각각 흰색의 자기질 타일과 바닥타일로 되어 있다. 대변기와 소변기의 자기문양들은 1920년대에 설치된 창덕궁 회정당에 설치된 것과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당시 기록사진을 통하여 실내의 공간구성과 디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1층의 응접실인 접견실의 벽난로 설치라든지 바닥에 카펫을 설치한 것이며, 창문에 설치한 커튼 등은 미국풍이 많이 가미된 것을 볼 수 있다. 2층의 생활공간은 일본 전통의 디자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소품인 병풍, 가구 등으로 한국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 3.4. 제2공화국(1960년 6월 15일-1962년 12월 25일)

#### (1) 경무대에서 청와대



<사진 27> 1960년 당시 외관



<사진 28> 대접견실 실내



<사진 29> 소접견실 내부

1960년 8월 제2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당일 경무대로 이사 온 후 경무대라는 명칭이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여겨 지붕에 창기와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청와대라고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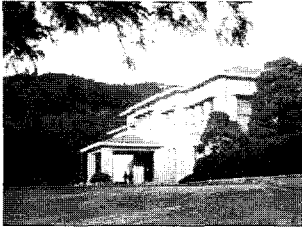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난 후에도 청와대에 거주했다. 그러나 1962년 3월 혁명 정부가 정치 정화법을 발표하자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사임 1년 7개월간 머물렀던 청와대를 떠났다.<sup>10)</sup> 이 당시 자료에는 대접견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라디에이터 카바부분을 장식하여 서양의 벽난로 모양으로 디자인하였고, 벽면에 대형 그림을 설치하여 접견실의 중심을 이루게 했다. 이곳에 사용되어진 가구는 헤플 화이트와 웨라톤의 영향을 받은 등받이 의자를 사용하였다. 길게 늘어진 커튼의 큰 문양 패턴은 1960년대의 복고풍을 연상시키는 미국풍의 스타일이 보인다. 특히 소접견실 등에서 서는 8폭 병풍 등의 소품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3.5. 제3,4공화국(1962년 12월 26일-1980년 10월 26일)

#### (1) 청와대 구분관

9)수도기념관 실측조사 수리보고서,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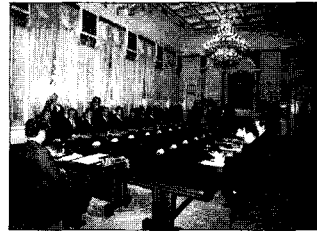
10)청와대 건설지, 청와대 비서실, 1991, p.147



<사진 30> 1966년 청와대 구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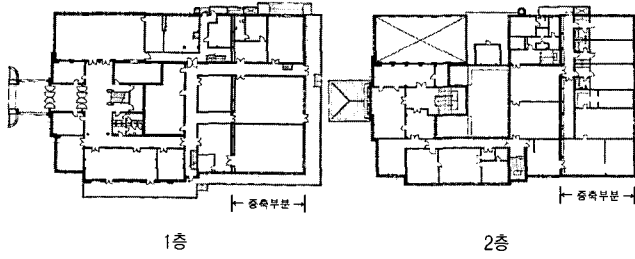
<사진 31> 소접견실 실내



<사진 34> 대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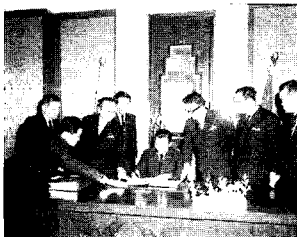


<사진 35> 1979 최규하 대통령 집무실



<그림 4> 청와대 구본관 평면도(1969-1980)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튿날 청와대로 거처를 옮겼다. 이 시기에는 청와대의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건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협소했던 본관 건물은 크게 보수되고 증축되었다. 1968년 3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 동안 지하 집무실에 대피시설이 증축되었고, 1969년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기존건물이 협소하여 부분 철거한 후 증축하여 집무실, 가족공간(2층) 및 소연회실 등을 개수, 확장하였다. 그 외에도 부분적 내부 개수를 실시하여 대접견실과 대식당을 보수하였고, 2층의 서재와 거실은 부분적으로만 수리하여 별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sup>11)</sup> 이 시기의 실내디자인은 최소한의 장식 디테일만을 갖고서 직선적이고, 기능적이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디자인에는 통치권자의 권력이 어떤 방향에서도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만 그 당시 장식을 한 디자이너, 소목장들은 거주자의 기호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역사상의 장식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



<사진 32>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사진 33> 대접견실 실내

접견실 및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목재물딩으로 벽을 직선적으로 장식하고 큰문양의 천벽지들을 사용하여 간결하지만 권위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대에는 본관 내부를 한·양식 절충형으로 대수

리를 하였고 수리기간(1979년 12월-1980년 2월) 동안에 대통령은 소접견실을 집무실로 대신 활용하면서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출퇴청 하였다.<sup>12)</sup>

대접견실은 기존의 원목 목재물딩의 직선적 단순장식의 디자인에서 백색 호마이카와 주두 부분의 장식과 금장을 사용하여 국적 불명의 장식이 실내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통령 접견실로 종래의 육중한 분위기의 실내를 백색 물딩을 사용하여 천장과 벽면의 2중적 디자인으로 중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2) 영빈관

1978년 12월에 국가의 각종 의전행사 및 기자회견장을 위해 4층 규모의 영빈관이 신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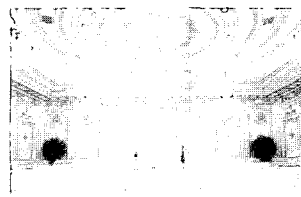
<사진 36> 영빈관 외관

4층 규모에 각각 홀이 있어 대형 회의나 국민 만찬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설계는 현대건설에서 턴키형식으로 설계시공을 담당했고, 실내설계는 유희준 교수가 참여하였다.



<사진 37> 현관 홀

영빈관의 외관에서 나타나듯이 좌우 대칭형으로 실내공간의 디자인 역시 정확한 대칭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중함과 중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층 만찬장의 실내는 당시 중앙청 메인홀의 곡면 천장의 커퍼드 천장을 재현한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 디자인의 형식은 서양식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한국적 전통 문양만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38> 1층 연회장



<사진 39> 2층 만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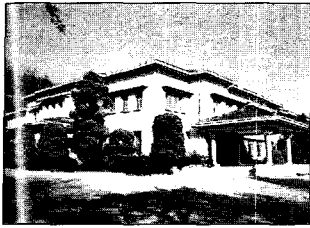
11)청와대건설지, 대통령비서실, 1992, p.148

12)op.cit, p.149



### 3.6. 제5공화국(1980년 10월 27일-1987년 10월 28일)

#### (1) 청와대 구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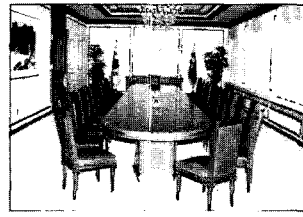
<사진 40> 구본관 외관(1980년)



<사진 41> 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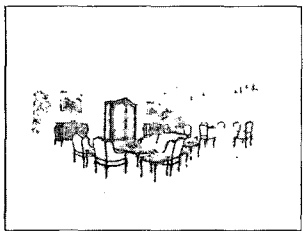
<사진 42> 대회의실



<사진 43> 소회의실



<사진 44> 소접견실



<그림 5> 2층 거실 투시도

1980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 구본관에 입주하였으나 내부 동선상의 문제로 1980년 12월 서향인 현관이 남향으로 위치가 변경되고, 내부시설도 부분 증축하게 된다. 1982년 2월부터 3월까지의 비서실장실이 비서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접견실을 확장하고 영부인 접견실을 이전 개수하게 되었다.<sup>13)</sup>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은 2층 천장에 목재 원목물딩에 금박을 입혀 중후함을 나타내고 비단벽지와 화려한 커튼으로 장식되었다. 이때 영부인 접견실을 전통 한식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공간연구소장(고 건축가 김수근)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문물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졌다. 이 시기부터 점차 청와대 내부의 설계도 전문가에 의뢰하여 한국 전통적 디자인을 현대와 접목시키려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 3.7. 제6공화국(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청와대 구본관건물은 대통령의 국정활동이나 외국 국빈들의 잦은 방문으로 국빈 접대 장소로 쓰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 동안 여러번의 개보수 작업을 해왔지만 50여년 된 조선총독부 관저로서 건물이 낙후하여 신축이 불가피하였고 일제 잔재를 일소한다는 의미로

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필요해졌다. 이 신축으로 인해 집무 및 접견을 위한 공간과 관저의 주거 공간을 분리하여 1989년 7월에서 1991년 8월 15일에 관저와 본관 건물을 준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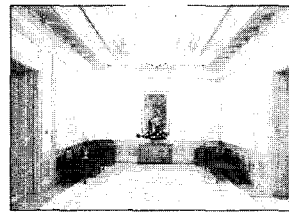
#### (1) 대통령 관저



<사진 45> 대통령 관저

대통령 살림집인 관저는 팔각지붕의 전통 한옥건물로 생활공간인 본채와 접견행사 공간인 별채를 배치하고 있다. 건축 설계는 선진엔지니어링이, 실내설계는 오인욱 교수가 시공은 현대건설이 1989년 8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졌다. 관저의 전체 평면구성은 현관홀을 중심으로 크게 주인공간, 가족공간,接客공간의 3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저의 전체 실내분위기 구성은 전통 실내건축에 현대 실내건축을 접목시킨 형태를 보이고 외부에서 바로 접촉되는 공용공간은 전통적 공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각개실별로는 생활양식에 따라 한실, 양실의 특성을 살려 계획되어졌다.

#### 1) 현관 홀



<사진 46> 현관 홀

한쪽 문을 열면 동시에 다른 한쪽 문이 열리도록 설치한 중문을 통해 들어서게 되는 홀은 가로 5.1m, 세로 12.5m의 직사각형으로 전실 역할을 한다. 좌측 출입문은 거실과 주인 침실로 통하고 우측은 가족공간으로 통

하는 복도가 된다.

이 홀은 관저를 사용하는 사람의 생활 습관과 예술적 감각, 취향을 나타내는 공간인 동시에 외부와 내부의 완충적인 공간이다. 벽면의 디자인은 한식 기등으로 분절된 패턴을 이용하여 가급적 예술품이 돋보이도록 간결하게 처리한 대신, 천장의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방이 부드럽게 보이게 서까래를 이용한 우물 천장에 격자(格子)의 섬세함을 표현되었고, 고유의 청사 초롱을 연상하게 하는 상들이라 설치되어 있다. 마감재료로 바닥은 온수 온돌 난방을 고려하여 벽체 주위에 괴목을 깔고 카펫은 중앙통로



<사진 47> 접견실

부분에만 깔렸다. 벽체 부분은 목재와 천 도배지로 처리하여 재질에서 오는 한국 전통의 고유 멋을 지닐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 2) 접견실

관저에 오는 손님이 주거공간과

13)op.cit, p.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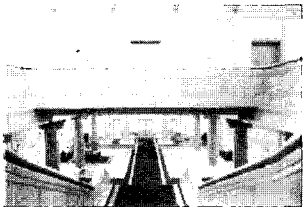
지 들어오지 않도록 별채에 접견실을 두고 있다. 한식 분위기로 벽면을 구성하여 아자(亞子)무늬의 벽지를 사용되었으며, 격자형 상들리에와 벽등을 달고 가구도 이층장, 반닫이 등의 한식가구를 설치하면서 창문에 방장(房帳)을 달아 한국 전통의 멋을 나타내고 있다.

(2) 청와대 본관



<사진 48> 청와대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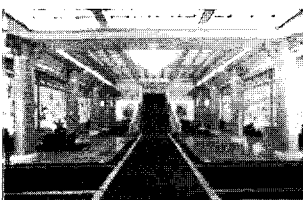
본관의 공간 성격은 전통궁궐 건축에서 나타나는 성격에 복합되게 재구성하고 각각 공간은 합리적인 기능 수행하기 위해 기능에 따른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 졌다. 본관 건물은 정립건축의 설계로 현대건물이 시공하고 실내설계는 오인욱 교수가 담당하였다. 본관의 주요기능은 대통령 집무공간이며, 그 밖에 의전상, 업무상 필요한 실들은 그 위계에 따라 본채와 2동의 별관에 나누어 수용되어졌다.



<사진 49> 홀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두고 전면 양쪽에는 별채로 연결되는 복도를 두고 대회의실과 대식당 기타 업무공간과 연결되고 있다. 2층의 각실들은 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홀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실내설계의 기본컨셉은 'museum'으로 건물 외부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국전통 양식에 최대한 접근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살린 격조 높은 공간연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 개방되는 주요공간들은 한국의 역사성과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목재 장식기둥 사이에 예술품을 특별히 제작 배치하고 있다. 1층 로비 좌우측에는 문무를 표현하는 예술품을 배치하고 2층 홀 천장에는 왕손의 상징인 천문도(天文圖)를 한지에 실크 프린트하여 설치되어 있다.

1) 로비 및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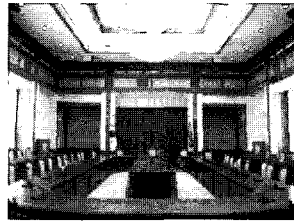
<사진 50> 1층 로비

로비에 들어서면 8개의 열주 형식의 원형기둥이 한국 전통 양식의 자연스런 공간의 분할을 나타내고, 홍송(紅松), 집성목(集成木)으로 만들어진 민흘림기둥 주두에는 현대적 감각의 단순한 디자인의 공포(拱包)를 설치하여 한국의 전통적 의장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닥은 괴목 마루판을 전통 우물마루 패턴으로 디자인되고 내부벽은 전통건축의 목조 장식을 홍송으로 가공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단순화시키고 천장은 우물 반자 형태로 디자인하여 궁궐건축의 실내를 단순화시켜 한국성을 표현하고 있다. 로비 좌우측에는 대형 벽화인 문·무를 상징되는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본관의 공간 성격은 전통궁궐 건축에서 나타나는 성격에 복합되게 재구성하고 각각 공간은 합리적인 기능 수행하기 위해 기능에 따른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 졌다. 본관 건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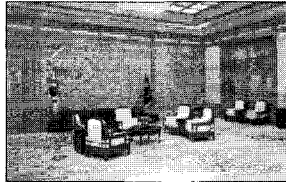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두고 전면 양쪽에는 별채로 연결되는 복도를 두고 대회의실과 대식당 기타 업무공간과 연결되고 있다. 2층의 각실들은 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홀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실내설계의 기본컨셉은 'museum'으로 건물 외부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국전통 양식에 최대한 접근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살린 격조 높은 공간연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 개방되는 주요공간들은 한국의 역사성과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목재 장식기둥 사이에 예술품을 특별히 제작 배치하고 있다. 1층 로비 좌우측에는 문무를 표현하는 예술품을 배치하고 2층 홀 천장에는 왕손의 상징인 천문도(天文圖)를 한지에 실크 프린트하여 설치되어 있다.

2) 대회의실



<사진 51> 대회의실

대회의실의 바닥에는 수직카펫을 깔고 벽에는 전통건축의 목조 장식을 차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천장은 단순한 우물반자에 층을 만들어 변화를 주었고, 기능적인 조명을 사용하였다.



<사진 52> 대통령접견실

3) 대통령접견실

대통령과 외빈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접견하는 동쪽벽면에는 「십장생문양화」를 서쪽에는 「산수화」를 설치하여 전통가구와 함께 전형적인 한국 전통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청와대 본관 건물의 실내는 한국전통적 실내의 패턴을 현대 실내디자인과 접목시켜 한국성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4. 대통령 관저 및 집무공간에 나타난 실내디자인의 표현성

시대적 구분에 의한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실내디자인 표현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통령 관저 및 집무공간의 실내공간 표현 특성

구분	실내공간 표현 특성	
 공간 형태 표현 조선총독부 관저 1939년-1945년	중정(中庭)의 설계방식으로 전형적인 일문식의 가옥구조로 1층은 집무공간 2층은 주거공간으로 구분. 1920년대의 실내표현의 석고 몰딩을 사용한 회벽마감으로 회백색의 천장과 벽면은 백색으로 장식하여 서양건축에서 나타나는 실내분위기를 나타냄.	 제2집건실  현관홀 정면계단 출처: 조선과 건축
 이화장 1945년-1948년 이승만대통령 사용	전통가옥 구조로서 천장벽의 몰딩은 재료분리대의 역할로서 장식적 개념없이 이음부분을 표현하여 단순하고 단아한 느낌을 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서구식 개념과 혼재된 전통 한옥에 그 시대상을 수용하여 변모된 모습을 보임.	 이화장 응접실  이화장 침실 출처:서울시사편찬위원회 오인욱 촬영
요소 디자인	·가구-서양식 가구 ·재료-1층 대리석 2층 다다미	요소 디자인

구분	실내공간 표현 특성		
 경무대 1948년-1960년 이승만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1층은 대통령 집무실로 2층은 생활공간인 관저로 사용됨. 미·일 절충식으로 소품을 배치하여 한국 전통성을 표현. 대접건실의 중앙부에 벽난로 모양의 디자인을 하여 실체체의 중심을 나타내어 위엄을 나타냄.	 대접건실  대접건실 후면
	요소 디자인	·가구-안락 소파와 서양식 가구 ·소품-병풍, 심층장, 사진액자 등 ·재료-바닥 카펫, 목재물딩에 벽지 마감.	자료출처:국가기록영상관
 사빈당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1950년-1953년 이승만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양식풍의 사회적 공간과 가사공간으로 되어 있는 일본 전통풍의 사적공간은 2층에 위치하여 중앙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 응접실의 경우 서양식의 벽난로 설치로 미국풍이 가미되어 실내분위기는 천장의 석고물딩과 단아한 벽면 처리로 양식풍을 나타냄.	 접견실 벽난로  가구
	요소 디자인	·가구-직선의 각점이 곡선과 조화된 테이블과 의자, 전통 3층장 ·소품-그림, 스탠드 ·재료-바닥 목재마루, 벽과 천장은 화벽마감	자료출처: 오인욱 촬영
 청와대 구분관 1960년-1962년 윤보선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중요실을 한 양식 절충형으로 실내를 구성하고 특히 대접건실의 벽난로형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여 서실의 중심점으로 사용하여 위엄성을 보여줌. 1960년대의 복고풍을 연상하는 미국풍의 스타일이 보임.	 대접건실  소접견실
	요소 디자인	·가구-소파형의자, 낮은 탁자, Classic England의자 ·소품-사진 액자, 도자기류, 병풍 ·재료-바닥 카펫, 벽과 천장은 벽지 마감	자료출처:국가기록영상관
 청와대 구분관 1962년-1980년 박정희대통령, 최규하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최소한의 장식 디테일만을 사용하여 직선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강조한 중엄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하여 권위적임을 표현. 대대적 보수작업으로 한 양식 절충형으로 기존 원목목재 물딩의 직선적 장식에 화려로운 주두의 황금색과 백색 물딩을 사용하여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	 대접건실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요소 디자인	·가구-원목색의 맞춤 가구 ·소품-병풍, 사진액자, 거울 등 ·재료-바닥 카펫, 원목목재 물딩의 천장, 벽은 벽지 마감.	자료출처: 청와대건설지국가기록영상
 영빈관 1978년-현재	공간 형태 표현	좌우대칭형으로 정중함과 권위적, 위압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와 구 중앙청 홀의 커피드천장을 재현한 실내는 보다 위압감을 주는 표현임. 전통적 부분문양이 정교함을 나타내고 있음.	 1층 연회장  2층 만찬장
	요소 디자인	·가구-상감세공과 금도금 장식 ·소품-벽화, 화분, 휘장 ·재료-원목 목재물딩을 장식 벽으로 사용하고, 벽과 천장은 벽지 마감	자료출처:청와대건설지국

구분	실내공간 표현 특성		
 청와대 구분관 1980년-1987년 전두환대통령 노태우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회의실 및 접견실은 목재위에 백색 석고물딩을 사용하여 장식하고, 벽면 및 천장에 비단벽지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실내. 특히 중요실(영부인실)은 한국 전통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음.	 대회의실  소회의실
	요소 디자인	·가구-마호가니 원목에 금박을 하여 문양을 포인트로 사용 ·소품-그림, 장식대, 도자기류 ·재료-바닥은 문양수직카펫, 목재 백색 물딩, 실크 문양 벽지	자료출처:국가기록영상(주)동명가구
 대통령 관저 1988년-현재 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관저의 전체 실내분위기 구성은 전통건축 실내와 서양식 분위기 연출 공간이 혼용되고 있고, 각개실별 생활양식에 따라 한 양식의 고유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계획. 현관 홀을 중심으로 크게 주인공, 가족공간, 접객공간의 3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접견실  현관홀
	요소 디자인	·가구-실용용도에 따라 전통 가구, 제작주문 가구 ·소품-그림 ·재료-바닥 마루, 카펫, 벽지 마감	출처: 청와대건설지국
 청와대 본관 1988년-현재 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사용	공간 형태 표현	본관의 실내디자인은 건축에서 중시한 한국전통양식에 최대한 접근하면서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시켜 정중함을 표현하고 실내분위기는 우리나라 궁궐건축 양식에서 느낄 수 있는 넉넉한 스케일감과 높은 천장고의 확보와 소박한 표현, 디테일의 섬세함을 표현하고 시각의 다변화를 꾀한 공간구성을 보임.	 현관홀  접견실
	요소 디자인	·가구-한국전통문양의 소파 ·소품-병풍, 전통장식장 ·재료-목재가 주재료, 목재원목과 회벽의 백색조화	출처: 청와대건설지국

## 5. 결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생활해 온 관저 및 집무공간은 시대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와 디자인의 특성들이 시대사와 함께 한 양·일 절충식, 또는 관료적 분위기의 권위주의적 그리고 전통적 개념을 현대와 접목시키려는 한국성 표현까지 많은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치권자의 권력이 어떤 영향에서도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당시 대통령들의 기호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감각적 취향은 반영되어 그 시대의 경제적 상황과 디자인 트렌드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역대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공간상의 부족으로 실내의 역대 대통령들의 검소함 때문인지 비교적 장식적이기 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고 형식과 권위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2) 50여년 동안 경제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의한 디자인 개수 작업 때문에 디자인의 개념없이 즉흥적, 일시적, 무원칙의 디자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1939년 조선총독부 관저에서 부터 1945년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 사용시기와 1947년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사용하기까지는 일본, 미국인들에 의해 일본식의 가옥구조 형태에서 미·일 절충식으로 개조되어 단지 한·미 절충식의 기본 골격에 병풍, 전통가구 몇점을 배치하고 커텐으로 장식하여 국적없는 디자인을 보이는 시기였다.

1945년 해방되자 망명지인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생활에서 경험한 모더니즘 건축 결합과 전통개념에 의한 절충식 경향의 의장적 특징을 표현함으로써 서구식 개념의 입식 생활로 고유의 의장성과 서구의 의장성의 조화를 이루려는 흔적을 이화장 경무대, 사빈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 구분관 건물의 대통령 접견공간(대접전실)과 중요실들에는 중심부에 벽난로모양을 중심부에 위치시켜 대칭적 요소를 가미하여 위엄성과 권위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역사적 흐름속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구조와 일본, 미국의 의장적 요소 표현으로 변화한 대통령 관저, 집무 공간은 세계화, 국제화라는 세계의 흐름속에 199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디자인에 한국 전통성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 관저, 집무공간은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한국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3) 일제 잔재를 일소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구분관 건물을 철거한 것은 역사의 산 현장을 지워버린 매우 아쉬운 사건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생활상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생활해 온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들은 한국실내디자인의 사적 의미에서 정리되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박길룡, 한국실내건축의 유전자, 공간사, 2005
2. 서울특별시사편纂委員會, 서울 600年史, 文化史籍篇, 제3권, 1979
3. 서울특별시사편纂委員會, 서울 600年史, 文化史籍篇, 1987
4. 국가기록 영상관
5. 청와대 건설지, 대통령비서실, 1992. 2
6. 임시수도기념관 실측 수리보고서, 부산박물관, 2001. 11
7. 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국정 홍보처, 2000, 12
8. 정부수립 40년, 문화공보부, 1988
9. 이영주·박영순, 현대 주거공간에 나타난 실내양식별 디자인특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5호통권52호, 2005.10
10. 김태영, 한국개항기 외인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논, 1990
11. 윤일주, 한국양식건축 80년사, 치정문화사, 1972
12. 꾸밈, 제16권 지1호 통권87호, 1991

13. 朝鮮總督府 土木局建築課調, 朝鮮と建築, 第6輯 第5号, 1927
14. 高橋源六, 最も新しい様式の官舎, 朝鮮と建築, 第6輯 第5号, 1927

<접수: 2006. 4. 28>